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20 여름철 종합대책 방역부터 취약계층 보호까지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보건·폭염·수방·안전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올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상황에서 ▲ 감염병 대응 중심 ▲ 일상적 방역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대폭 확대된 서울시 역학조사관(43명)과 자치구 역학조사관(64명)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초기대응에 발 빠르게 나선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외출과 야외 나들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상시 방역체계를 운용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심각 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쪽방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는 외부로부터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특별관리를 지속해 일상 속 방역을 철저히 한다.

올해는 초여름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한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어르신, 쪽방 주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폭염으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가구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증액 편성한다. 온열 질환이나 실직 등에 처한 가구 지원을 확대해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 무더위쉼터 운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인원을 쉼터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인 독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봄서비스도 지원한다. 사지 마비 등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7~8월 폭염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이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혹서기 응급구호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차량 이동 목욕 서비스(3대, 5개소)를 운영하고 시민과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중증질환·정신 취약 노숙인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 밖에 우기에 접어드는 것을 대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웹사이트·앱·SNS 등을 통해 폭우, 풍수해와 같은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안전누리 홈페이지'(http://safecity.seoul.go.kr)에서는 실시간 기상정보와 시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서울안전 앱에서는 재난·사고 관련 속보, 사용자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해 여름철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현금으로 바로 도움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 보릿고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70만원씩 2개월 동안 집중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 업력 6개월 이상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중

자세한 안내는
02-120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